

# 전주서 전통국악 상설공연 펼쳐진다

10월 말까지 전주대사습청·전주우리놀이터 '마루달' 서 '전주가·무·악展' 진행

소리의 고장 전주에서 전통예술공연의 정수를 맞출 수 있는 상설공연이 펼쳐진다. 전주시는 다음 달 말까지 전주대사습청과 전주우리놀이터 '마루달' 등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총 26회에 걸쳐 전통국악 상설공연이 운영된다고 밝혔다.

한국전통의 가(歌), 무(舞), 악(樂)으로 구성된 전통국악 상설공연은 9월에는 전주대사습청에서, 10월에는 전주우리놀이터 '마루달'에서 관광객과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펼쳐진다. 지역예술인과 관객이 함께하는 '귀명창 체험'도 준비돼 있다.

지난 8일 이날 오후 7시 30분 전주대사습청에서 펼쳐진 개막 특별공연에서는 △가(歌)-방수미(판소리)의 '단가 사절가', '김씨중제 춘향가 중 사랑가' △악(樂)-신현식(아쟁)의 '신현식류 아쟁산조', 정준호(장구) '설장구' △무(舞)-백경우(한국무용)의 '이매방류 살풀이', '사풍정감' 등의 무대가 선을 보였다.

개막공연에 이어 전북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젊은 명인과 명창들이 참여하는 본 공연이 관객들의 귀와 눈을 즐겁게 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의 유망 신진예술인을 발굴하는 동시에 그동안 축적해 온 문화예술 자산을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글로벌 관광콘텐츠로 발전시켜나간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전통 가무악의 멋을 올곧이 선



다음 달 말까지 전주대사습청과 전주우리놀이터 '마루달' 등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총 26회에 걸쳐 전통국악 상설공연이 운영된다.

보이는 상설공연을 통해 전통공연의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국악예술인의 전통무대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 동시에 전주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흥겨운 축제의

장이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공연 문외는 문화통신사 협동조합(063-282-2527)으로 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 군산리랑민화협회 단체전 '괜찮아, 잘 될거야!'

장미갤러리, 10월 10일까지 민화 작품 20여 점 전시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분관인 장미갤러리 2층 전시관에서 오는 10월 10일까지 군산리랑민화협회 단체전 '괜찮아, 잘 될거야!'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우리 지역의 민화 단체인 군산리랑민화협회(회장 최주희)의 파초도, 화병도, 해학반도도 등 20여 점의 작품들을 선보여 시민 및 관광객에게 민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리랑민화협회는 민화 작가인 최주희 회장이 지난 2017년 설립해 20여명의 회원들이 전북전통공예 전국대전, 전북민화협회 회원전, 군산리랑민화 회원전 등의 전시를 가졌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에서 코로나 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활발히 작품활동을 하여 우리 시의 예술단체 활동 및 민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미갤러리 2층 전시관은 군산 지역 작가들의 예술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공간으로 매년 공개모집을 통해 장미갤



러리 전시작가를 선정하여 선정된 작가에게는 전시 기회와 함께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을 지원한다.

/군산=김관근 기자

## 남원테마파크 모노레일·짚라인 운영 '인기'

개장 후 첫 주말 천명 이상 탐승객 방문

남원테마파크(주)는 지난 8월 31일 남원에어 레일(모노레일)과 어사와이어(짚와이어, 짚라인)가 운영 개시 후 첫 주말 천명 이상의 많은 탐승객이 몰리며 활기를 띄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남원에어레일은 남원관광단지 내 주요 지점에 위치한 3개 스테이션을 최고 높이 11.2m 고공 레일을 따라 지나며 남원 주요 관광지와의 자연 경관을 즐기며 힐링과 짜릿함을 만끽할 수 있으며, 어사와이어는 총 1.46km, 최고 시속 80km에 달하는 속도로 국내 최초 도심 위를 가로지르며 즐길 수 있는 다이나믹 짚와이어 시설이다.

특히 주로 볼거리 위주인 남원에 체험형 시설이 더해지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관광지이자 체류형 남원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야간에는 어사와이어 탐승정인 높이 78m '춘향타워'의 화려한 조명을 통해 남원 관광에 또 다른 볼거리와 함께 포토 스팟을 제공한다. 춘향타워 조명을 해질 무렵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 된다.



남원테마파크 관계자는 "가족, 연인들과 함께 남원에서 잊지 못할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공예품전시관은 한옥마을을 찾는 귀성객을 위해 '현장 이벤트'를 진행했다.

## 전주공예품전시관, 추석 맞아 현장 이벤트 진행

전주공예품전시관은 한옥마을을 찾는 귀성객을 위해 '현장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이벤트의 메인 행사는 '최종병기 활로, 전통 활을 이용해 과녁에 화살을 맞히는 이벤트다.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지급됐다.

이에 따르면 이벤트에 사용되는 활과 화살은 국가무형문화재 제47호 공시장 전수 조교 김윤경 선생님과 전주공예품전시관이 협업해 제작한 공예 체험 키트로, 전통 활의 모양과 제작

기술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또한 행사장에서는 활쏘기뿐 아니라 전통 팽이, 제기, 투호 등 전통놀이 5종을 체험했다. 이와 함께 전주공예품전시관 대표 캐릭터 '호사원' (호랑이 사원)을 행사장 곳곳에 배치해 호사원 포토존을 마련했다.

한편, 전주공예품전시관 체험관에서는 이번 행사와 연계해 '활과 화살', '전통 팽이' 등을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공예 체험키트도 마련했다. /장은성 기자

